

언어적 소수자가 바라본 일본의 언어 경관

- 후지사와(藤沢)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사례

고재필 (게이오대학교)

<한국어 초록>

본 발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언어 경관을 제시하면서,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. 그 정책으로는 외국어 번역문 병기, 점자 표기, 음성 서비스, 필담, 커뮤니케이션 보드, 후리가나 표기, 그림 및 사진 사용과 더불어 '쉬운 일본어' 사용을 들 수 있다. '쉬운 일본어' 사용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 층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텍스트와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노력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. 나아가, '쉬운 일본어' 사용은 언어적 소수자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, 결국 언어적 다수자의 정치적 선택과 실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된다. 한편,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실천이 어떠한 맥락과 목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.